

다 생산은 파잉 생산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육계농가의 자제도 중요하지만 육종농장의 생산조절이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③ 관계당국의 지원책 미약 : 소, 돼지와 같이 육계사육 숫자는 물론 종계사육 숫자를 파악하여 가격의 예시제를 주기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육계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육류소비의 상당량을 육계업이 차지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모든 면에서 도외시되어온게 사실이다. 소·돼지는 조금만 숫자와 가격의 변동이 있어도 매스컴에 보도되지만 육계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위생적으로 도계 처리된 육계가 전국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소·돼지와 같이 연동제 실시를 하여 도·소매상의 폭리를

를 막음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할수 있다.

④ 사료가격의 안정 : 정부차원에서 사료원료 및 사료안정기능 확보로 소비자 가격의 안정에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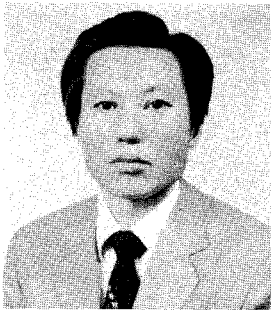
둘째,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료회사, 부화장, 유통업자(상인), 육계업자는 상호신뢰 속에서 육계업을 발전시켜야 가격안정을 기할수 있다.

① 사료회사에서는 투기성을 면 철새업자 및 영세업자들에게 회사간의 판매경쟁으로 인한 무리한 덤핑 및 외상판매로 육계 파잉생산을 초래하고 있는데, 사료회사의 자제를 바란다.

② 부화업자는 초생추의 파잉생산으로 초생추의 덤핑판매 및 출하후 수급제도 등 판매정책의 개선을 바란다.

③ 유통업자(도·소매상인)는 생산자와 상호 공존해야 한다는 불가결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립된 군소 도·소매상인의 저질적인 불신가격조작이 가격폭락을 유발하므로 유통체계 개선 및 규제강화로 폭리를 막고 정당한 가격을 받을수 있는 상호신뢰 풍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육계업자는 주위의 상황에 동요됨이 없이 계획적인 입추, 생산, 출하를 함으로써 가격의 변동폭을 최대로 줄일수 있다. 끝으로 육계업자 및 육계단체(계우회)는 대한양계협회 도지부를 중심으로 굳게 뭉쳐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교환을 통하여 수요 공급에 알맞는 적절한 입추와 출하로 정당한 가격을 받을수 있도록 상호 일치 단결하여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수급 조절장치 또는 전담부서 설치돼야

권 경 익
(육계납세조합 조합장)

주지하다시피 양계(육계)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수급상의 불균형, 특히나 육계에 있어서는 공급량의

진폭에 따라 가격의 진폭이 대단히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격의 불안정이 우리나라 양계(육계)산업의 발전에 커다란 장

애요인이 된다는 것은 재언의 여지가 없다.

우선 그 자체로서 전근대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생산량을

이 부족하여 판매가격이오르면 생산자에게는 '이윤이 큰 대신 소비자에게는 부담이 됨이 당연하고, 생산이 과잉 되면 가격이 폭락하여 영세 생산업자들은 큰 손해와 함께 도산을 면치 못하게 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리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또한 양계산업 즉, 육계산업을 투기장화하게 될 것이며, 건전한 의미의 투자요인을 유발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은 양계(육계)산업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자원 및 인력의 낭비는 물론, 국내에서 기반을 가진 자생적 양계(육계)산업이 성장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국제적인 무역이란 면에서도 커다란 우려를 자아낼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식량의 무기화라는 이야기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이즈음에는 더욱 그러하리라.

그런데 생산면에 국한되어 이야기되어질 수만은 없다. 국민소득수준의 상승과 더불어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축산물은 모두가 이러한 추세에 있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생산의 안정성은 소비의 안정성에서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소비의 안정성은 어떻게 올 수 있을까 그것은 가격의 안정에 중요한 열쇠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가격의 안정은 어떻게 달성될 수 있을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공급과 수요의 균형

에서이다. 육계에 대한 수요는 그 진폭이 대체적으로 적다고 가정하면 문제는 이에 대응하는 생산량에 있다. 즉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생산량의 조절이 그 관건이라 하겠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급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생산조절장치가 없고, 생산량의 예측에 필요한 통계자료와 시장정보마저 미흡한 실정이며 이를 위한 전문가구 및 인력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양계(육계)산업의 안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생산량의 적정량을 미리 예측해낼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겠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이 예측된 양을 생산해내기 위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화 및 사료를 적정량만 생산토록 하고 육계생산업자들의 난립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조처나 육계 생산업자 모두가 참여하는 협동조합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 투기는 결코 건전한 발전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위의 일 즉 생산량의 조절과 양계인의 권익과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할 전담부서의 설치가 시급할 것이다. 이 부서와 생산자 사이의 협력은 업계의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절대 필요한 것이다. 이 안정만이 양계(육계)산업의 정착과 지속적인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과학적인 생산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생산비 절감

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한편 가격을 외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주로 공급이 부족할 때 다른 육류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국내 사육업자를 도외시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우육의 수입으로 인해 쇠고기 편중소비를 부채질 하였다. 지금까지의 예로 볼 때 이는 국내 비육우 생산기반을 약화시켰으며, 양계·양돈업계의 침체를 불러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중의 하나가 되었다. 국내 육계생산량이 체화되어 생산비의 절반에도 못 미칠 때에도 우육의 수입은 계속되어 쇠고기의 수요는 늘고 육계소비의 위축은 날로 심해져서 생산업자는 도산할 수 밖에 없는 불행만이 있었을 뿐이다. 좀더 차원높은 근본적인 치유가능성을 제시하는 정책이 세워져야 함이 마땅하다 하겠다.

소비면에서는 육계의 소비를 촉진하는 홍보활동이 요청되는 바이며, 더욱 근본적으로는 가공기술의 개발이 시급하다 하겠다. 소비자의 기호에 맞고 저장능력을 갖춘 가공제품의 출현은 소비의 확대뿐 아니라 물량체화시에 수출이나 비축의 가능성을 밝게 할 것이다. 가공이나 비축, 수출은 자유경제하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수급의 불균형을 조절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문제는 또한 유통과정에도 있다. 현상태에서는 공급은 완전 경쟁하에 있으나 수요면에서는 우육과 돈육의 독과점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다른 부문에서도 완전경쟁을 위해서

는 아직도 제대로 되지않은 거래의 표준을 위한 표준화와 등급화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양계(육계)산업의 앞날을 내다볼 때 국내적인 그 주안점으로서는 가격의 안정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구하고 그 기반 정착에 필수적인 조건임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함을 정책당국은 절감해야 할것이다.



계획생산체제 구현 바람직

이 태 근

(일산소재 소개울농장경영, 본회 이사)

양계산업 특히 브로일러산업은 생산단계에서 생산조절이 효율적으로 되고 유통개선이 이루어져 가격안정이 될 때 닭을 기르는 보람과 땀흘린 노력의 대가가 올것이다.

닭을 키워놓고 출하시기가 가까워지면 시세에 마음을 졸여야 하는 심정은 어제 오늘의 실정은 아니다. 가격의 불안정, 질병피해 등 엄청난 손실을 당하면서도 대책없이 지속되어야 하는 우리 생산자들의 처지가 언제나 개선될지 모르겠다.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육계사육자들은 사업의 불안정성으로 어느정도 업을 지속하다가 떠나고 해서 3~4년만 지나면 생산자들의 얼굴이 바뀌게 된다. 생산조절, 유통개선, 생산자모임의 활성화, 효율적인

수매비축 등을 통해 육계가격이 안정되어 육계생산자들이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브로일러가격안정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 생산조절

그동안 누적되어 온 사료 및 병아리의 외상구매는 부화장에서 일단 생산된 병아리는 양육가들 손에 들어가 병아리값 외상, 사료값외상 등의 방법으로 계획성없이 무작정 입추, 생산되어 출하되며, 결국 생산과잉을 초래해 가격하락을 부채질하게 된다. 영세한 생산자의 입장에서 그동안 누적된 부채때문에 계속 입추를 해야 하고, 그나마 입추를 해야만 비록 부채지만 자금이 회전되어 먹고 살 수 있기에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적인 생산과잉과 산물가격하락을 부채질하게 된다.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브로일러 사육자들은, 스스로 입추조절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생산해내는 구조적인 생산과잉속에 해매고 있는 실정이다.

병아리 생산과잉, 사료판매 경쟁에 휘말리기보다는 생산자 각자가 스스로 자제력을 갖고 입추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지역별, 단지별로 합심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해 효율적으로 입추를 해야 한다. 또 부화장들도 병아리 생산에 신중을 기해 무모한 병아리생산, 판매를 지양해서 사육농가를 살리고 전체 양계산업이 안정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